

嶺南地方 現存木活字와 그 印刷用具

柳 鐸 —*

《目 次》

- | | |
|---------------------|---------------------|
| I. 序 言 | (8) 晉州 金谷 晉陽 河氏 木活字 |
| II. 嶺南地方의 現存木活字의 實態 | (9) 安東 三山 全州 柳氏 木活字 |
| A. 實 態 | (10) 英陽 蓮塘 木活字 |
| (1) 榮州 伊山 平山 申氏 木活字 | B. 現在 有無 未確認 木活字 |
| (2) 安東 豊山 坡平 尹氏 木活字 | C. 綜合해 본 몇 가지 事實 |
| (3) 安東 臨河 林氏 木活字 | III. 木活字 印刷方法과 그 用具 |
| (4) 山清 法勿 麗澤堂 木活字 | A. 印刷方法 |
| (5) 山清 元溪 安東 權氏 木活字 | B. 印刷用具 |
| (6) 山清 華溪 青松 沈氏 木活字 | IV. 結 言 |
| (7) 尚州 銀尺 東學本部 木活字 | |

I. 序 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發明은 우리 문화의 세계적 자랑거리의 하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영예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現在 우리는 그 영예를 빛나게 하는 文化的계승을 하여 왔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癸未字를 鑄造한 이후 여러가지 기술적 진통을 겪으면서 여러번의 改鑄·新造 및 改良이 있었고 地方에서는 官鑄活字에 영향을 입어 雕成이 손쉬운 木活字印刷가 盛行하였지만 그印刷기술에 있어선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수백년 傳統的方法을 거의 그대로 답습해 왔음은 事實이다. 하지만 現在의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傳受되어 왔고 그것을 改良하려고 어떠한 努力を 경주해 왔던가를 지금 입장에서 정리 분석되어야만 할 것이다.

必要에 따라 수시로 書籍을 組版印刷할 수 있는 利點 때문에 官衙의 政教書籍 印行에 알맞은 活字印刷는 주로 官의 主導로 發達하여 왔고 이것이 民間에 流傳되어 先祖들의 文集刊行과 族譜印刷에 큰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地方에서는 木活字가 많이 雕成되었고 19 C. 以後부터는 특별한 事情을 빼고는 거의 木活字로 文籍을 印行해 왔다. 때문에 地方의 木活印刷는 우리나라 出版史에 있어서 그대로 넘겨버릴 수 없는 중요한 위치

* 釜山大學校 師範大學 國語教育科 教授

를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여태까지 活字에 對한 우리의 관심은 주로 官鑄活字의 印本이나 그 活字 自體에만 두어졌고 地方의 木活字印刷는 거의 관심밖에 있어서 그 연구가 미미하다고 하기 보다 오히려 황무지라고 表現함이 적절할 것이다.

사실, 말을 하기는 쉽지만 地方 木活字는 각곳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만든 것이어서 그 種類가 많아 그 體系의 정리에는 많은 時間과 努力이 要求되는 힘든 作業이다. 아직 發見되지 못하고 齋室이나 곳간에서 湮滅직전에 있는 것도 많을 것이고 博物館에 收藏된 木活字들도 많이 있지만 그 傳來事實이 不明한 것이 대부분이니 뜻이 있어도 선뜻 연구를着手하기에는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 같은 難點을 알면서도 頭書의 題目을 가지고 나온 까닭은 筆者가 십수년 동안 嶺南刊行의 文獻을 調査하는 과정에서 發掘한 木活字가 10종이나 되었고 그 傳來事情도 비교적 잘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제 누구에 의해서라도 거론되어야 할 課題라는 점에서 이에 勇氣를 낸 것이다.

慶尙道地方에서 木活字印刷가 始作된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現在 記錄이나 印出된 實物에 의해 볼 때 明宗 2년에 印行된 「殿策精粹」의 卷末에 嘉靖丁未(1547)歲 慶州京邸開印⁽¹⁾이라는 記錄을 通하여 王亂以前에 嶺南의 官衙에서는 木活字印刷가 있었음을 알겠고 慶尙道書冊目錄 舊上條⁽²⁾에

“木鑄字四萬一千六十一字 具欵在吏廳”

이라고 한 것을 보아 嶺南監營에도 木活印刷가 진작부터 있었음을 알겠다.

民間에 木活印刷가 盛行한 것은 적어도 英正 以後라고 보는데 영남지방에 있어서 民間에서 언제 최초로 木活字印刷가 시작되었는지 지금은 알 길이 없다.

官衙에서 木活字印刷가 必要했던 것은 주로 政教文獻의 印布에 利點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民間에 活字印刷가 盛行한 주된 理由는 自己 祖先의 宣揚을 위한 文集刊行과 族譜刊行의 사회적 욕구에 있다고 본다. 王亂 때 흩어진 氏族들이 약 200년을 지내는 동안 定着 安住하여 人口가 늘고 경제적 안정이 와서 氏族部落이 형성되니 自己네들의 文化的 사회적지위 향상과 身分的 安定을 위해서 그를 뒷받침하는 分明한 文籍이 要求되었다. 이같은 사회적 욕구가 응결된 결정물이 文集과 族譜인 것이다.

또 族譜는 약 30~50년마다 改修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많은 部數를 요하지 않는 族譜를, 費用이 많이 드는 木版으로 刊行하기보다는 번거롭지 않고 간편하고 경제적인 木活字印刷가 그들의 구미에 맞았던 것이다.

(1) 이 사실은 李仁榮의 「淸芬室書目」에 밝혀져 있는데 여기서는 金斗鍾氏의 「韓國古印刷技術史」(탐구당, 1974) p. 200에서 再引用.

(2) 安春根 : 韓國出版古史斷, 亞細亞學報 제 1집(아세아학술연구회, 1965) p. 181.에서 再引用

초기에는 활자인쇄술의 미숙으로 文集刊行은 木活字보다 木板으로 刊行하였으나 後期에 들면 壽傳을 위한 특별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대개 木活字로 文集도 印行하였다. 19C. 末에 鉛活字印刷術이 보급되기 시작하자 現代인쇄술에 밀리어 사양길에 들어선 刻手들은 손쉬운 木活字를 스스로 雕成하여 이 門中에서 저 門中으로 이 사랑에서 저 사랑으로 行商印刷를 하였다.

이같은 영남지방의 木活字印刷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필자가 조사한 10種의 木活字를 일차적으로 그 雕成時期, 方法, 使用者, 活字의 字樣 書體 印本 由來 印刷用具 등 實態를 파악하여 嶺南地方의 木活字 研究의 기초적 거점을 삼고자 한다.

II. 嶺南地方의 現存 木活字의 實態

A. 實 態

(1) 荣州 伊山 平山 申氏 木活字⁽³⁾ (慶北大學校 博物館藏)

[雕成年代] 19C. 말경

[雕成者] 未詳(榮州郡 平恩面이란 마을에 살던 刻手라고 하나 姓名 未詳)

[最終使用者] 刻手인 申仁淳(1926~) 現在 慶北 榮州郡 伊山面 槽岩洞에 居住

[字 樣] 活字의 모양은 높이가 낮아
납작납작하다. 活字는 大小 2종류가
있다.

	街(大字) (cm)	朝(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2×0.9	0.5×0.5
② 活字의 밑면	1.1×0.8	0.3×0.3
③ 活字의 높이	0.3	0.4

[書 體] 筆書體인데 누구의 글씨를
字本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음.

[印刷用具] 活字保管箱 擇字(文選)用具, 組版·印刷·刻字 등에 必要한 用具가 갖추어져 있다.

[印 本] 慶北大 博物館에는 最終組版 ‘雪松先生文集目錄’ 4~5張이 헐리지 않은 채 남아



[圖 1] 申氏 木活字가 처음 발견될 때의 보관상태

(3) 活字의 命名은 그 所藏處를 가지고 이름을 붙인다면 첫째 이름을 보아 그 所從來를 알 수 없고, 둘째 한곳에 2種以上을 收藏하게 되면 混同하기 쉽고, 셋째 活字의 所有者나 所藏處가 移動되었을 때는 다시 명명해야 되므로 여기서 活字의 發見地方, 雕成 또는 使用者的 姓字를 따서 명명하였다.

있다. 使用者였던 申仁淳氏는 이 活字로 찍은 文籍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圖 2]

- 濟西集 共10 (星州地方)
- 靖窩集 共 5 (春陽地方)
- 松潤集 全
- 美村集 共 2
- 潛溪集 共 2 (奉化居村)
- 叢友集 共 2
- 悔咎集 全
- 法川集 共 2 (奉化 法田)
- 廬峯集 共 2
- 柏竹堂實記 共 2



[由來] 荣州 伊山 平山 申氏 木活字는 原來 申仁淳氏가 雕成한 것이 아니고 同郡 平恩面에 살던 姓名未詳의 어느 刻手가 만든 것인데, 이것이 빗에 잡히어 安東에 있던 것을 申仁淳氏의 父 申國賢(1899~1962)이 購入한 것이다. 이 申仁淳氏가 살고 있는 이웃마을인 ‘용각골’(榮州郡 伊山面 용각골)은 주로 刻手들이 살던 刻手村인데 前記 申國賢(1899~1962)은 어릴 때부터 용각골에 사는 崔刻手에게서 刻術을 배웠고 그 아들 申仁淳氏는 18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일을 배워 刻手가 되었는데 1950년대까지도 注文만 있으면 文集을 刊行하였다고 한다. 申氏는 木活字 印刷뿐만 아니라 製本도 잘하는 기술자로서 嶺南一圓에 印役만 있으면 불리어 다녔다. 이 木活字의 最終印本은 「雪松先生文集」이며 本 木活字 및 인쇄용구는 1968년에 筆者에 의해 發掘되어 현재 慶大博物館에 收藏되었다.

(2) 安東 豐山 坡平 尹氏 木活字 (啓明大學校 博物館藏)

[造成年代] 19 C. 末경

[雕成者] 活字의 初刻에 對한 事情은 지금에 알 길 없고 現存한 이 活字의 밀판[蠟板](=活字版)에 “坡平尹氏世譜”라는 木記가 조판된 채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옆에 “始祖 降生□千□年 壬寅”이라고 있는데 壬寅은 곧 1902년(光武 6년)이니 1902년 以前에 雕成되었음은 확실하다. 그런데, 이 木活字 속에서 금속활자가 12개가 나왔다고 하는데⁽⁴⁾ 이 같은 사실은 금속활자를 사용하던 官邊인쇄기술자들이 영리를 목적한 民間인쇄로 전향된 사실을 暗示해 주는 것이다.

(4) 이 活字가 啓明大에 收藏되기 이전에 이 活字를 가졌던 李會杰(安東)氏가 금속활자도 섞여 있었음을 직접 알려 주었고 그 活字의 字樣은 亂의 것이라고 하였다.

[最終使用者] 지금 組版 된 채로 있는 밀판[蠟板]에 ‘坡平尹氏世譜’의 木記로 보아 尹氏 世譜를 마지막으로 찍은 尹氏門中인 것 같다. 族譜印出을 위해 活字를 購入 印刷技術者를 雇用하여 인출하였기 때문에 活字印刷用具가 그 宅에 남아 있는 것 같다.

[字樣] 活字의 모양은 글씨가 새겨 진 부분보다 반대쪽의 밀면이 조금 작다. 마치 4각형의 花盆의 모양과 비슷하다.

	量(大字) (cm)	佐(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1	0.4×0.4
② 活字의 밀면	0.8×0.9	0.3×0.3
③ 活字의 높이	0.4	0.4

[活字書體] 이 書體는 筆書體이지만 筆力이 죽은 印書體의 인상을 준다. 이런 印象을 주는 活字는 印刷가 잘 되었더라도 떡딱하고 여성진 느낌을 준다.

[印刷用具] 本 活字도 앞서 말한 榮州 伊山 平山 申氏 木活字처럼 用具가 全部 갖추어져 있다. 단지 製本用具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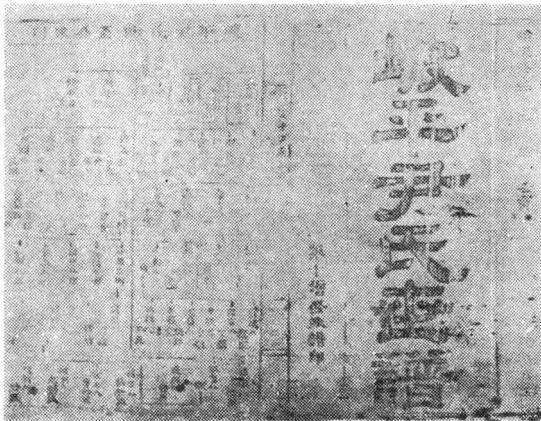
[印本] 이 活字는 마별도로 보아 많은 印本이 있겠으나 확실한 것은 ‘坡平尹氏世譜’(壬寅本) 뿐이다. [圖 3]

[由來] 이 活字는 1977년 여름 방학 때 安東 李會杰氏宅에서 처음 發見했다. 밀판 위에 活字가 組版된 채 그 原形이 完全히 보관되어 있었기에 그 출처를 물었더니 安東 豊山 尹氏宅에서 나온 것이라 하였다. ‘밀판’에 組版되어 있는 ‘坡平尹氏世譜’라는 木記는 나무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밀판 위에 바로 그 木記를 조각한 것이다. 보통 나무에 조각하여 조판하는 것이 관례인데 밀판 위에 그대로 조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였다.

이 활자 속에 금속활자가 12個 나왔다는 것은 이 활자가 서울의 官邊 印刷業者들이 緣由된 것이라 생각되며 活字移動의 研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素地가 많은 木活字이다. 現在 啓明大 博物館에 收藏되어 있다.

(3) 安東 臨河林氏 木活字 (柳鐸一 藏)

[雕成年代] 이 活字는 印書體와 筆書體의 2種의 활자가 混合된 것이다. 그 雕成年代는 未詳하나 筆書體보다 印書體 活자가 먼저 雕成된 것이라 보는데 이 書體는 整理字體와 비슷하다.



[圖 3] 현재 남아있는 밀판에서 인출한 尹氏族譜의 木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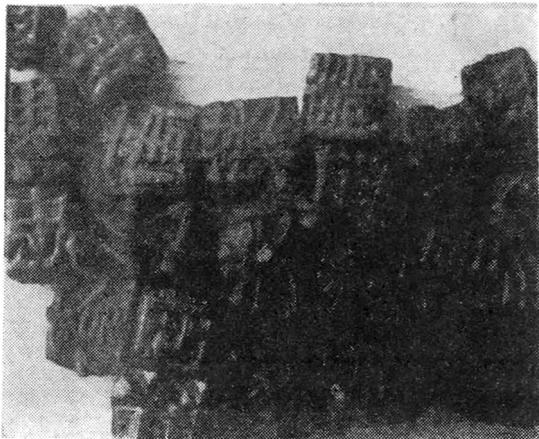
〔雕成者〕 未詳

〔最終使用者〕 이 活字의 最終使用者는 慶北 安東郡 臨河面 古谷洞 林讚逸(1895~)⁽⁵⁾氏 인데, 1934년경에 購入하였고 解放 후 自己의 選舉運動 傳單도 이 목활자로 인쇄했다고 한다.

〔字 樣〕 活字의 字面의 크기는 보통이나 活字의 높이는 他活字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다. [圖 4]

	痛(大字) (cm)	文(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1×1.1	0.5×0.55
② 活字의 밑면	1.1×1.0	0.4×0.4
③ 活字의 높이	0.6	0.6

〔書 體〕 印書體인 整理字體를 주로하고 筆書體가 混合되어 있다. 小字는 左右보다는 上下가 더 길다.



[圖 4] 安東 臨河 林氏 木活字

〔印刷用具〕 이 林氏木活字의 부속인쇄용구는 紛失되었고 남은 것은 ‘潭陽田氏派譜序’가 植字된 밀판[蠟板]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印 本〕 活字가 마멸된 정도로 보아 많은 印本이豫見되나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潭陽田氏派譜’뿐이다.

〔由 來〕 이 活字 속에 整理字體의 活字가 많이 들어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雕成年代가 以上에서 紹介한 것들보다는 年代가 높을 것으로 짐작되나 정확한 年代는 알 길 없다. 最終使用者인 林讚逸(1895~)에 의하면 같은 郡內 인접 面인 吉安面 송사 토일이라는 곳에 살던 趙氏에게 1934년 경에 購入하였고 그當時 趙氏도 自己가 雕成한 것이 아니라 他人으로부터 買入 使用했다고 한다. 林讚逸도 이 活字를 구입한 후 별로 使用하지 아니하였고 自己가 面議員에 出馬했을 때 選舉傳單을 印刷한 바 있었다. 이 活字는 1972년 여름 방학 때 筆者에 의해 발굴되었고 현재는 筆者가 ‘밀판’ 및 活字를 所藏하고 있다.

(4) 山清 法勿 麗澤堂 木活字 (山清郡 新等面 法勿 麗澤堂 藏)

〔雕成年代〕 이 木活字로 印出한 ‘大瑕齋實記’의 卷末에 “丙申(1896)仲冬 麗澤活印”이라는 기록을 기준할 때 고종 22년(1896)以前에 이 活字는 雕成되었음을 알겠다.

〔雕成者〕 누구가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다.

(5) 1972. 7. 22 筆者가 林讚逸氏를 찾았을 때에 70을 넘어선 고령이었고 3.1운동 당시 그의 伯氏는 총살 당하고 自己는 2년 동안 대구형무소에서 육고를 치루었다고 하는 독립투사였다.

〔最終使用者〕 이 活字는 個人の 所有가 아니라 麗澤堂⁽⁶⁾의 公有物인 것을 보면 印刷時에 는 技術者를 臨時로 雇用하여 印出한 것 같다.

〔字樣〕 字面은 그리 차이가 없으나 활자마다의 높이는 차이가 난다. 그것은 一時에 雕成된 것이 아니라 隨時刻字한 것이고 또 刻手의 精誠이 不足한 탓으로 활자의 모양이 고르지 못하다.

	適(大字) (cm)	戊(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2×1.1	0.6×1.0
② 活字의 밑면	1.2×1.1	0.6×1.0
③ 活字의 높이	0.6	0.6

〔書體〕 印書體

〔印刷用具〕 活字와 ‘먹솔’만 남아 있고 餘他의 印刷用具는 없음.

〔印本〕 여러 種의 印本이 있으나 현재 確認된 것은 「大瑕齋實記」(全)뿐이다. 이 책의 卷末에 ‘丙申仲冬 麗澤活印’이라는 刊記가 있다. [圖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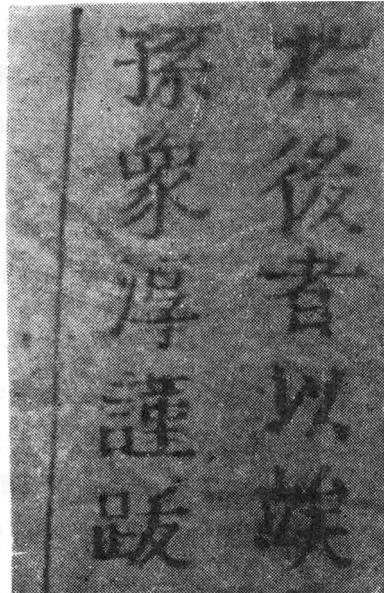
〔由來〕 麗澤堂에 所藏된 木活字는 2가지 活字가 섞여 있는 것을 보면 거기서 새로 雕成 했다가보담 다른 곳에서 구입한 것에다가 없는 글자를 다시 보충한 것인듯 하다. 麗澤堂은 1890년대 許傳의 文集을 刊行하고 그 學德을 崇仰하기 위해 세운 書堂이다. 이곳이 西部 慶南 儒林의 정신적 집결처이므로 이 麗澤堂과 관련있는 人物의 文集을 刊行하려고 이 活字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書體가 아름답지 못하고 印刷 기술이 서툴러서 인기가 없었던 것 같다. 印本이 많지 못함은 바로 인기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본다.

이 活字는 현재 약 20,000개 정도 남아 있으며 지금 麗澤堂 性齋先生文集冊板庫 상자 속에 保管되어 있다. (1972. 7. 조사)

(5) 山清 元溪 安東 權氏 木活字 (山清郡 新等面 元溪里 權載熙氏 藏)

〔雕成年代〕 現所藏者 權載熙(1912~)氏의 아버지 때부터 쓰던 것을 물려 받았다고 하니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20C 초에 이루어진 것 같다.

〔雕成者〕 前記 權載熙의 父 權宇容(1890~1957)氏가 刻手였기 때문에 그가 直接 雕成한



[圖 5] 麗澤堂 木活字의 印本
(大瑕齋實記의 跋文)

(6) 이 麗澤堂은 韓末 巨儒 許傳(號, 性齋)의 門下生들이 그 學德을 기리며 道學을 講論하기 위해 만든 書堂인데 이곳에 性齋先生文集冊板이 보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影幀까지 奉安되어 있다.

것으로 생각한다.

[最終使用者] 權載熙氏. 그는 日帝後期 및 解放 以後에도 이 山清地方을 中心으로 상당수의 文集과 族譜를 印刷하였다고 한다.

[字樣] 嶺南地方의 木活字는 대개 턱이 높은 것과 얕은 것으로 구분되는데 이 활자는 턱이 낮은 活字이다. 小字는 字面의 크기에 비해 턱이 높다.

	球(大字) (cm)	到(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0.9×1.2	0.5×0.55
② 活字의 밑면	0.9×1.1	0.4×0.4
③ 活字의 높이	0.3	0.55

즉 活字分類箱으로부터 擇字 登字 組版時에 쓰이는 밀(蠟), 밀판, 밀고르게, 竹片, 도마, 刻刀等 印出用具까지 完全하게 남아 있다.

[印本] 1975. 8. 3 調査時 印刷破紙 및 權載熙氏의 말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圖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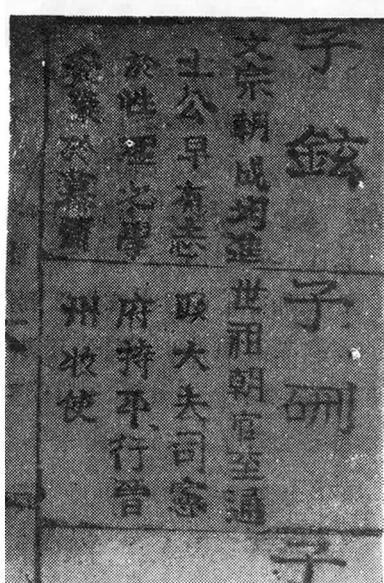
- 金寧金氏族譜⁽⁷⁾
- 而堂先生文集(卷之 31)
- 有齋集
- 萬齋集 共 10
- 果齋集
- 訥菴集
- 月洲集

[由來] 이 木活字는 1975. 8. 3 山清郡 新等面 陽前里 元溪에서 發掘된 것이다. 本 木活字의 所有者 요 印刷技術者인 權載熙氏의 父 權宇容이 昌寧地方에서 刻手로 일해 오다가 약 50년전 이 元溪로 移住하였고 昌寧에 있을 때도 木活字印刷業을 하였다고 한다. 그 當時 權宇容이 이 活字를 雕成했던 것인지 또는 購入한 것인지에 對해서는 權載熙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이 木活字는 權載熙氏가 새로 雕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인 權宇容이 물려준 것 그대로 使用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 木活字의 書體는 다음의 山清 華溪 青松 沈氏 木活字와 비슷한데, 華溪 沈氏의 말에 의하면 이 權氏 木活字도 沈相福의 글씨로 만든 것이라고 하

[書體] 글자의 上下 길이 보다 左右가 약간 크고 납작납작 한 筆書體

[印刷用具] 지금 당장이라도 使用할 수 있도록 갖추어져 있다.



[圖 6] 權氏木活字 印本
(金寧金氏族譜 卷 1·6)

(7) 金寧金氏族譜는 마침 印出破紙가 있어서 그 印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以下의 印本은 權載熙氏의 기억에 따랐고 직접 筆者가 寓目하지 못했다.

나 그것을 확인할 자료는 아직 發見하지 못했다. 어떻든 華溪 沈氏木活字와 이 權氏木活字는 이 地方의 代表的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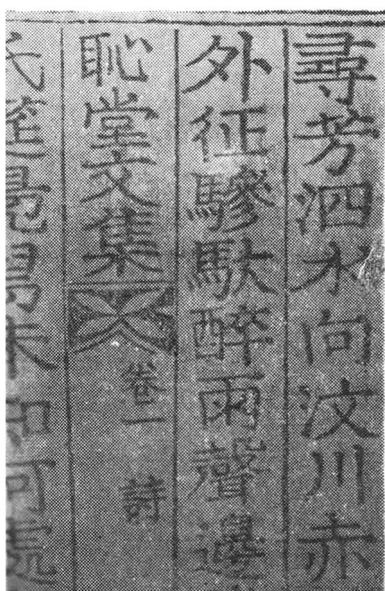
(6) 山清 華溪 松青 沈氏 木活字 (山清郡 今西面 華溪 沈柱燮氏 藏)

[雕成年代] 여기 紹介되는 活字는 日帝時代에 雕成한 것이다.

[雕成者] 원래 다른 活字를 가지고 있다가 그 활자가 오래되고 字體가 마멸되어 그것은 다른 사람에 讓渡하고 일제시대에 지금 활자를 다시 만든 것이다. 改雕 당시 字本은 沈柱燮(1906~)氏의 부친 沈相福(1876~1951 號 聰堂)이 쓰고 刻字는 慶北 清道 栢谷에 사는 刻手 金命坤(生歿年 未詳, 지금 살았으면 약 100살 정도)이 하였는데 一日 동안 刻한 글자가 약 1,000개 정도였다고 한다.

[最終使用者] 沈柱燮(1901~)

[字樣] 이 活字도 역시 大小 兩種이 있다.



[圖 7] 華溪 沈氏 木活字 印本
(聰堂文集 卷1)

	鑄(大字) (cm)	宗(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15×0.9	0.55×0.45
② 活字의 밑면	0.7×0.7	0.4×0.5
③ 活字의 높이	0.4	0.5

[書體] 楷正한 筆書體, 이 字本은 沈相福이 쓴 것을 가지고 만든 活字이므로 筆主를 알 수 있는 唯一한 木活字이다. 活字를 만든다는 目的 아래 쓰여진 글씨 이기 때문에 筆力이 죽었고 만든 글씨 같은 느낌이 든다. [圖 7]

[印刷用具] 活字保管箱을 비롯하여 擇字 組版 印出製冊의 用具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印本]

- 志山集 共 6(忠南 公州)
- 聰堂集 共 4
- 鵠湖集 共 2
- 橋梓壽站 全
- 痘窩稿 全
- 竹圃遺稿 全
- 金海金氏族譜
- 耿齋文集 共 4

[由來] 앞에서 보아온 것은 대개 刻手가 木活字를 雕成 혹은 구입하여 行商印刷를 하였던 사실에 비해 이 山清 華溪 青松 沈氏 木活字의 筆主는 冊板의 最終 原稿本인 登梓本⁽⁸⁾ 을 專門的으로 쓴 書寫者인데 木板印刷가 뒷전으로 밀리게 되자 간편하고 費用이 적게

(8) 木版의 刻字를 위해 쓰여진 最終 原稿本을 보통 板下本이라고 부르나 筆者는 우리의 傳來하던 用語대로 登梓本이라고 使用한다.

드는 木活字를 雕成하였다는 데서 다른 점이 있다.

이 沈相福氏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며 당시 著名한 宋秉璿(號 淵齋)의 門人으로서 뒤에 「耻堂集」이란 文集 4冊까지 낸 선비였다. 그의 아들인 沈柱燮에 이 木活印刷를 물려 주었고 沈柱燮氏는 西部 慶南地方 木活印刷의 大宗을 이루었다고 한다. 지금 沈柱燮氏는 八耋의 高齡으로 作業은 할 수 없고 活字는 그의 아들인 沈載蘊(1926~)이 그의 亭子인 華溪齋에 保管하고 있다.

沈柱燮氏의 말에 따르면 자기 집에서 活字를 만들어 使用하다가 글자가 마멸되어 印刷가 선명하지 못하면 그 活字는 他人에게 讓渡하고 새로 雕成하여 使用하였다고 하며 이近方의 木活字는 거의 自己집에서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沈相福, 沈柱燮父子는 글도 잘하는 선비 木活인쇄업자였기 때문에 文集刊行을 希望하는 사람이 믿고 일거리를 주어서 타 인쇄업자보다도 일거리가 많았다고 하며 심지어는 忠南 公州까지 가서 「志山集」(共6)을 印行했을 정도로 有名하였다.

현재까지 發見된 木活印刷用具中 가장 잘 갖추어진 活字이다.

(7) 尚州 銀尺 東學本部 木活字 (尚州郡 銀尺面 于基里 金德龍氏 藏)

〔雕成年代〕 1910~1930 사이

〔雕成者〕 당시 東學教主였던 金周熙(1860~1944)가 主管하고 刻字는 信徒中 刻手들이 만든 것인데, 종교적 信仰心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活字 하나하나가 現代 鉛活字처럼 모양새가 정교하고 일정하다.

〔字 樣〕 이 木活字의 모양은 現代 鉛活字 모양과 흡사하다. 이 木活字는 밀을 사용하지 않는 組立式印刷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鉛活字처럼 크기가一定하고 活字 밀면 4方의 굽을 1mm 정도 깎아버렸다.

활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寬(大字) (cm)	(小字) ⁽⁹⁾ (cm)
① 活字의 字面	1.2×1.2	
② 活字의 밀면	0.9×0.9	
③ 活字의 높이	1.7	

〔書 體〕 楷書 筆書體

〔印刷用具〕 木活字 保管箱과 인체 등 몇 가지 用具만 있고 나머지는 亡失되고 없다.

〔印 本〕 이 活字를 雕成한 後 使用은 거의 못한 듯하다. 그것은 保管되어 있는 活字가

(9) 1973. 10. 7 東學本部 木活字를 調査 당시 小字를 실측 못했기 때문에不得已 空欄으로 두었다.

殆半이 벅이 묻지 않은 새활자라는 것을 볼 때 쉽게 알 수 있다. 印本은 格式 1冊⁽¹⁰⁾ 뿐이다.

〔由來〕 이 活字는 東學本部에서 布敎資料를 인쇄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1973. 10. 7에 尚州郡 銀尺面 于基里 東學本部였던 金德龍氏宅에서 東學歌辭 册板과 함께 筆者에 의해 發見된 것이다. 이 活字의 특색은 전통적 木活字 印刷方法인 밀판〔蠟版〕 植字를 위한 活字가 아니고 현대 鉛活字 組版式으로 組立하여 인쇄하도록 만든 活字라는 것이 특색이다.

(8) 晉州 金谷 晉陽 河氏 木活字 (釜山市立博物館 藏)

〔雕成年代〕 未詳

〔雕成者〕 未詳

〔最終使用者〕 晉陽郡 金谷面 雲門洞 嚴享 河炫碩氏⁽¹¹⁾

〔字樣〕

	卒(大字) (cm)	濱(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2×1.05	0.5×0.6
② 活字의 밑면	1.2×1.0	0.45×0.4
③ 活字의 높이	0.4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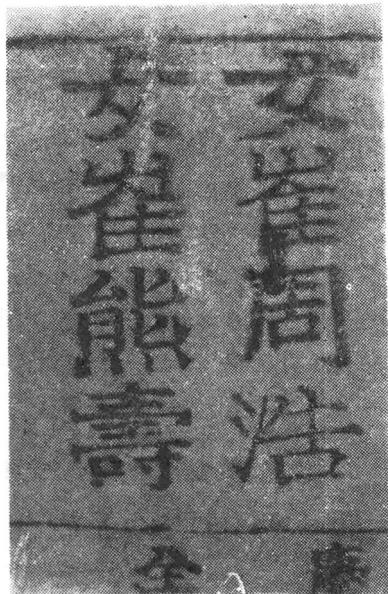
〔書體〕 납작남작한 印象을 주는 筆書體. 아마 山清
華溪 前記 沈相福의 글씨인 듯하다. [圖 8]

〔印刷用具〕 活字 만을 빼어 버린 밀판〔蠟版〕을 비롯
모든 用具가 갖추어져 있다. 현재 釜山 博物館에 展
示되고 있다.

〔印本〕

- 景賢祠誌 共4
- 老柏軒文集 附錄
- 晦亭遺稿
- 晉陽鄭氏族譜(卷之十一)
- 居昌章氏舊譜
- 良岳文集 附錄

〔由來〕 이 木活字는 1976. 5. 23 筆者가 경남 晉陽
郡 金谷面 雲門洞 嚴亭 河炫碩氏宅에서 發掘調査한
것이다. 河炫碩(1912~1978)은 肅齋 李鍾弘斗 松山



[圖 8] 河氏 木活字 印本
(晋陽鄭氏族譜 卷11)

(10) 이 格式은 尚州東學의 儀軌集이다.

(11) 이 문은 1978. 5월 4일(陰) 別世하였다.

權載圭의 門人으로 漢學에 能한 선비였는데 自己네 先祖의 文集을 印出하기 위하여 解放直後 晋陽郡 井村面 冬勿里 李士仁(本貫 月城, 당시 80세 정도)으로부터 購入한 것이다. 李士仁도 自己가 雕成한 것인지 아니면 他人에게 購入한 것인지 지금은 알 길 없다. 다만 活字의 書體로 보아 前記 山清 華溪 沈相福의 字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 짐작된다. 河炫碩氏는 本活字를入手한 以後 良晶集 附錄만을 印刷하였다고 한다. 그 後 河炫碩氏는 1978년 여름 他界하기 전에 이 木活字 全部를 釜山市立博物館에 寄贈하였다.

(9) 安東 三山 全州柳氏宅 木活字 (安東 三山 柳基泰氏 藏)

[雕成年代] 未詳

[雕成者] 未詳

[字 樣] 활자의 턱이 비교적 높은 活字다.

	端(大字) (cm)	勇(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2×0.9	0.9×1.0
② 活字의 밑면	1.0×0.7	0.6×0.6
③ 活字의 높이	0.7	0.7

[書 體] 筆書體 [圖 9]

[印刷用具] 全無

[印 本] 印本 未調査

[由 來] 이 活字는 1979. 7. 6 安東郡 禮安面 三山 英祖 때 臺諫을

지낸 三山 柳正源(1703~1761)先生

의 宗宅에서 發見한 것으로 미쳐 그 來歷을 調査하지 못했다. 인쇄용구는 하나도 없고 다만 木活字만이 상자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活字의 磨滅과 着墨의 형상을 보아 istrue 많은 印本이 있을 것이라 思料되며 이들의 구체적 기술은 後日로 미루고 그저 실문단 여기 소개해 둔다.



[圖 9] 柳氏宅 木活字 書體

(10) 英陽 蓬塘 木活字 (安東邑 李會杰氏 藏)

[雕成年代] 19C. 末?

[雕成者] 未詳

[字 樣] 字樣은 주로 턱이 높고 刻字가 精巧하지 못하다.

[書 體] 筆書體 小字는 길이가 길죽한 印書體 성향이 짙은 書體임. [圖 10]

	進(大字) (cm)	交(小字) (cm)
① 活字의 字面	1.2×0.9	0.6×0.8
② 活字의 밑면	1.1×0.7	0.4×0.6
③ 活字의 높이	0.9	0.8

〔印刷用具〕 全無

〔印 本〕 未調査(경북 영양군 일원
에 이 印本이 많이 있을 듯)

〔由 来〕 이 木活字는 1979.7.19 安
東邑에서 우연히 찾아진 것인데 所
有者 李會杰氏의 말에 의하면 英陽
蓮塘에서 나온 活字인데 그 밖의
由來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圖 10〕 英陽 蓮塘 木活字 書體

B. 現在 有無未確認 木活字

위에서 調査한 10種 이외의 未確認 木活字가 상당한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嶺南地
方에서 刊行된 文籍의 卷末에 쓰인 刊記에서 ‘活印’이란 글자를 자주 대할 수 있는 테서 알
수 있다.

이와같은 刊記를 中心하여 筆者가 寓目한 것들을 여기 提示하여 後日 發掘乃至 考究의
資料로 삼는다.

(1) 殿策精粹 木活字

이 책의 卷末刊記에 ‘嘉靖丁未(1547)歲 慶州京邸, 開印’⁽¹²⁾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壬亂
以前에 벌써 慶州에서 木活字로 많은 책을 印行하였지만 지금에 그 活字는 亡失되어 없고
그 印本만 남아 있다.

(2) 嶺南監營 木活字

安春根氏의 論文 ‘韓國出版古史斷’⁽¹³⁾ ‘書冊目錄’ 营上條에

“木鑄字 四萬一千六十一字 具櫟在吏廳”

이란 記錄이 보인다. 이로써 嶺南監營에서 木活字를 使用하여 書籍을 印行하였음을 알겠으
나 이 活字의 印本이 무엇인지는 현재로는 알 길 없다.

(3) 黃帝素問 木活字

筆者가 收藏하고 있는 黃帝素問의 第2冊 卷末에 “光武丙午(1906)初夏 密陽 琴川 新刊”

(12) 金斗鍾：韓國古印刷技術史(探求堂, 1974) p. 200. 에서 再引用

(13) 亞細亞學術研究會：亞細亞學報 第一輯(1965), p.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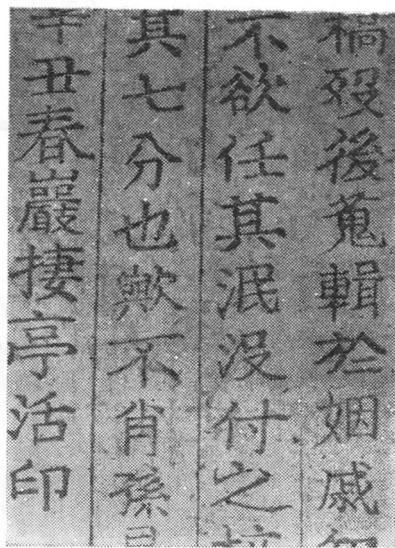
이라 되어 있고 粗惡한 印書體 木活字이다. [圖 11]

(4) 競庵遺稿 木活字

이 活字는 얼핏보아 山清 元溪 權氏 木活字의 印本같이 보이나 그와는 다른 活字이고 該本 卷末에 “辛丑春巖棲亭活印”이라고 한 刊記가 있다. 書體는 筆書體. [圖 12]



[圖 11] 黃帝素問 木活字印本



[圖 12] 競庵遺稿 木活字 印本

(5) 溪山思服錄 木活字

嶺南의 餘他의 活字보다 조금 큰 筆書體 木活字인데 溪山思服錄 第52張 後面에 “甲川亭印”이란 木記가 있다.

(6) 德育齋 木活字

이 活字는 筆書體이나 다른 書體보다는 筆力이 살아 보이는 것으로서 그 印本은 1910년 山清 德山 德育齋에서 守愚堂(崔永慶의 號)의 文集 重刊을 알리는 通文이 있다. [圖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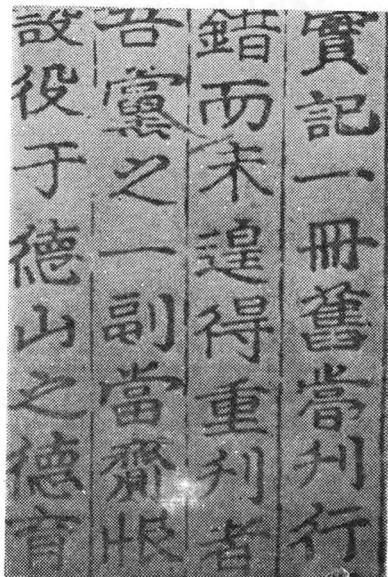
(7) 孤松集 木活字

이 孤松集은 山清 端溪地方에서 나온 文集인데 活字는 筆書體이고 粗惡하다. 이 책의 卷末에 “壬寅(1902년) 夏丹山 隱樂齋活印”이라고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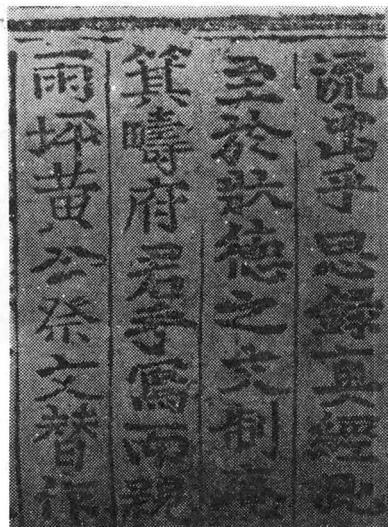
(8) 谷口圖集 木活字

이 木活字는 慶北 尚州 于山 鄭氏宅에서 만든 活字이다. 이 活字는 그의 先祖 鄭經世

(1563~1633 號 愚伏)의 文集인 愚伏集 册板의 글자를 하나 하나 칼로 도려내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字樣이 特異하다.⁽¹⁴⁾ 다른 책판의 글자를 도려내어 만든 것이라 글자의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거기에 없는 글자는 다시 만들어 넣어서 서로 어울리지 않아 印本이 황잡하다. 그러나 이름 높은 祖上의 文集冊板의 글자로써 그 子孫의 文集을 만들었다는 데 自矜이 있었던 것 같다. 年前에 現地를 답사했으나 活字는 끝내 찾지 못했다. [圖 14]



〔圖 13〕 德育齋 木活字 印本



〔圖 14〕 谷口園集 木活字印本(이 활자는 愚伏集冊板글씨를 도려내어 만든 것임)

(9) 天嶺志 木活字

天嶺은 咸陽의 舊號인데 天嶺誌의 木活字는 印書體이며 그 卷末에 “景仰齋活印”이라 되어 있다. 이 天嶺誌는 1888년에 刊行된 것으로, 前間恭作의 「古鮮冊譜」에도 이 印本이 紹介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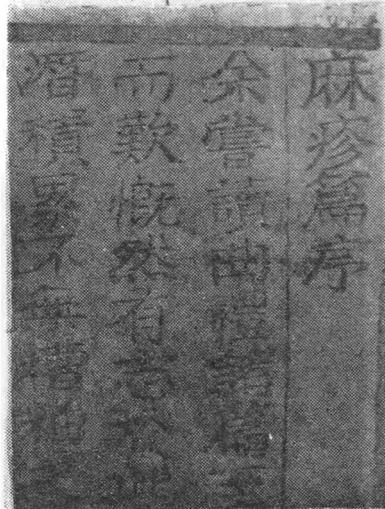
(10) 麻疹篇 木活字

이는 日帝時代에 晉州地方에서 주로 使用되었던 活字인데, 이 책의 卷末에 1931년의 版權紙가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인쇄소를 차려 놓고 사용했던 활자인 것 같다. 活字의 印本은 이 地方에서 많이 발견되지만 活字의 有無는 알 길 없다. 書體는 筆書體다. [圖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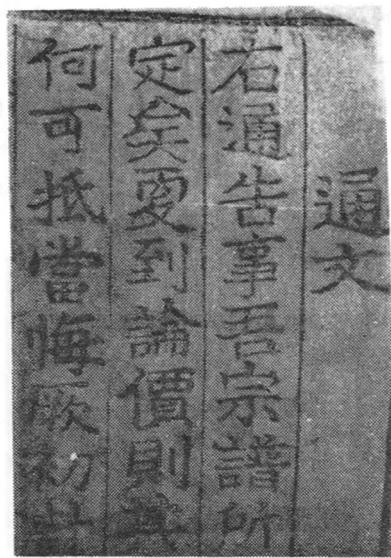
(11) 密陽 牛山 景慕齋 通文 木活字

이 活字는 大邱에 살던 權一錘(行商印刷者)의 活字인데 筆書體로서 글씨가 방박지고 단단

(14) 수년전에 安東 佳谷에 계시는 權五根氏(70여세)의 말에 따르면 安東河回에서 梧里集(李元翼의 文集, 梧里集은 河回에서 刊行되었다)의 册板을 가지고 活字를 만드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끝내 활자를 만들어 사용했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圖 15〕 麻疹篇 木活字 印本



〔圖 16〕 密陽 牛山 景泰齋通文 木活字 印本

한 인상을 준다. 1920년대까지 이 活字가 族譜나 文集을 많이 찍은 듯하다. [圖 16]
以上 11種 以外에도 많은 木活字 印本이 있었을 것이나 여기 紹介한 것은 筆者 個人이 틈
나는 대로 調查한 것이다. 活字를 調查할 때 막연하게 調査하는 것보다 이와 같은 記錄을
根據로 함이 좋기 때문에 그 發見 계기를 삽기 위해 여기 굳이 실어 두었다.

C. 綜合해 본 몇가지 事實

(1) 活字雕成者나 使用者의 身分과 营利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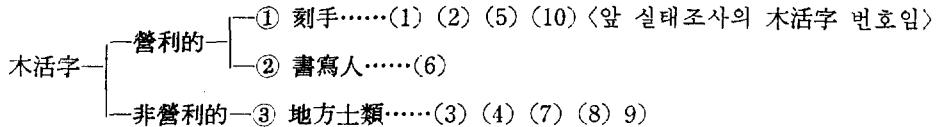
筆者が 木活字를 雕成 또는 使用했던 印刷者の 身分을 营利性에다가 총점을 맞출 때 다
음 몇 가지 類型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刻手이거나 刻手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活字印刷技術이 보급되어 木版印刷
가 斜陽에 접어들자 그들은 活字印刷로 方向을 돌려 그들의 業을 삼았다. 이들은 農事를
지으면서 農閑期 副業으로 印刷를 하였다. 例를 들면 榮州의 申仁淳氏, 山清의 權載熙氏같
은 분들이다. 이들은 自己의 活字로써 書籍을 印刷하기도 하지만 技術者로 雇用되기도 하
고 또는 印出製本手로서 임금을 받고 일하기도 하였다. 申仁淳氏는 慶北 永川에 있는 朴仁
老의 文集인 「蘆溪集」重刊 때도, 密陽 退老「騎牛先生文集」印行 때도 雇用되어 作業한
일도 있다.

[둘째] 木版印刷에 있어서 그 登梓本 書寫者로서 늘 초빙되어 일하다가 스스로 쓴 글씨
로써 活字를 雕成하여 印刷業을 副業으로 삼는 이다. 이는, 文集이나 族譜를 印出할 때,
실제 作業하는 사람이 能文한 선비라는 점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의 信賴度가 높아 비교적

일거리가 많았다. 山清 華溪沈氏 木活字를 만든 耻堂 沈相福 같은 이는 남의 文集刊行의 登梓本을 써 주는 일을 하던 書寫人으로서 活字印刷를 시작하였다. 이는 出版하는 일에 일부 관계하다가 印刷業者로 들어선 例의 하나이나.

[제解] 소위 양반 土類가 自己들의 祖上文籍을 印行하기 위하여 活字를 雕成하거나 買入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技術者만 雇用하여 印行하는 者들인데, 앞서 말한 첫째 둘째는 營利爲主였다면 이것은 營利問題는 버리고 印行 頒布에 그 뜻이 있었다. 山清 麗澤堂의 木活字나 安東 三山 全州 柳氏 木活字 같은 것이 그 좋은 實例이다.



(2) 活字 雕成의 方法

木活字의 基本材는 자작나무・감나무・고암나무・서나무・배나무・대추나무・대나무⁽¹⁵⁾ 등으로 되어 있다. 반드시 이와 같은 나무이어야 한다는 제약은 없으나, 나무에 연륜이 없고 비교적 단단한 나무이고 刻字에 알맞은 木質이면 된다. 대추나무나 회양목같은 것은 活字를 만들고 刻字에는 좋으나 그 木質이 너무 단단하므로 印刷時에 着墨이 좋지 못하다고 한다. 活字의 材料는 木版을 만들 때처럼 소금물에 씨는 작업이 없어도 되며, 材料가 잘 건조된 것이면 좋다. 그것은 活字가 작아서 木版처럼 틀어진다거나 갈라지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雕成의 方法으로 본다면 새로 雕成하기도 하며 때로는 木版에 刻字된 글자를 도려 내어 만들기도 하는데 後者の 實例는 앞에서 말한 바 있는 尚州 于山의 鄭氏宅에서 만든 「谷口園集」 木活字이다. 새로 雕成할 때는 있는 印本을 字本으로 삼거나 또는 書寫人이 쓴 글자를 가지고 도장을 새기듯 한다. 낱낱의 活字를 만들어서 그 위에 글자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널판을 글자 크기만큼 가는 틈으로 반쯤 끊어 놓고 거기에 한 자 한 자 글자를 새긴 뒤에 그것을 낱낱이 뜯어 내면 낱개의 活字가 된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서 木活字가 이루어지므로 글자의 크기는 같아도 활자의 外樣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 만약 尚州 東學部本 木活字처럼 組立式 인쇄방법을 취할 때는 활자의 크기가 꼭 같아야 된다.

(3) 嶺南 木活字의 字樣

한편 木活字는 印刷 途中에 없는 글자는 즉석에서 刻字하여 만들어 넣는다. 따라서 활자

(15) 嶺南地方에서 만든 活字로써 대나무로 만든 것은 發見되지 않았지만 現在 東亞大學校 博物館所藏 木活字는 대나무로 만들었다. 그런데 이 活字의 出處는 全北 咸平이다. 嶺南에 收藏되어 있어도 湖南地方產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論外로 했다.

의 모양이나 높이가 일정하지 못하다. 活字의 字面의 크기에 차이가 생기면 組版이나 印刷에 問題가 되지만 活字의 높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에는 관계없으므로 활자 모양이 각기 다르더라도 별 지장이 없다. 木活字들이 대개 그 外形이 일정하지 못한 것은 이런데에서 緣由된 것이다.

嶺南地方의 木活字의 字樣을 分類한다면

① 字面의 넓이나 活字의 밑면의 넓이가 같고 活字의 높이가 높은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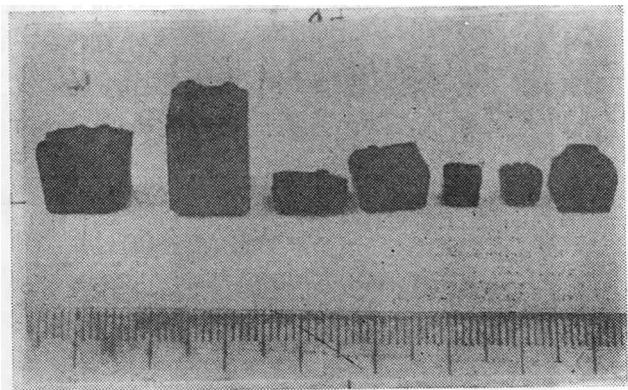
② 字面의 넓이보다 活字의 밑면의 넓이가 작은 형태

③ 字面의 넓이나 活字의 밑면의 넓이는 같으나 活字의 높이가 같은 형태

로 나누어 진다.

①의 경우는 앞에서 말한 바 현대 活版式처럼 組版하여 印刷하던 活字이고, ② ③은 ‘밀판’ 위에 植字하는 소위 附着式組版에 쓰이는 活字이다.

嶺南地方에 現存하는 木活字의 字樣은 後期일수록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밀판을 사용하는 附着式組版에는 活字의 턱이 높아야 할 필요가 없는 데서 온 결과라 하겠다. [圖 17]



[圖 17] 영남지방 목활자의 모양. 가장 큰 것이 東學本部 木活字이다.

(4) 嶺南 木活字의 書體

우리 나라에 있어서 木板이나 活字의 書體는 印刷體와 筆書體로 크게 나누어 진다.

印刷體는 上下의 획보다 左右의 획이 가늘어서 흡사 프린트字體같은 것인데 이것은 中國文獻書體에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 校書館의 文集字, 生生字 같은 것이 그 代表的 書體이다. 筆書體는 붓으로 자연스럽게 쓴 것들인데 甲寅字體 등이 代表的이다.

우리 嶺南 木活字의 書體도 印刷體와 筆書體로 나누어 진다. 筆者는 일찌기 嶺南地方 木活字本을 書體別로 分類 展示⁽¹⁶⁾하였지만 現在 調査된 活字를 中心으로 본다면 대개 印刷體活字가 筆書體活字보다 年代가 오래된 느낌이 든다. 印刷體는 生生字體 같은 印刷體가 많고 現存 活字로서는 文集體의 印刷體는 嶺南地方에서 아직 發見되지 않는다.

(16) 1963. 9. 독서주간의 한 행사로 釜山大 圖書館에서 展示會를 가졌을 때 그 目錄을 作成하면서 印刷體·筆書體로 나누었다. 釜山大附屬 圖書館, プリント本, 1963. 9 p. 9.

筆書體 木活字는 筆力이 비교적 살아있어 筆畫에 立體的 인상을 주는 것과, 筆書體이지만 衡前의 글씨처럼 實用性에 얹매여 個性이 없는 印刷的 平面的 인상을 주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筆力を 살리어 個性을 들어 내는 것은 1910년에 나온 山清 德山 德育齋 回文 木活字 같으 있으며, 印刷的 平面的 인상을 주는 것은 山清 華溪 青松沈氏 木活字流의 것이다. 이 印刷的 平面的 인상을 주는 筆書體 木活字들의 特色은 글씨가 上下의 길이 보다 左右의 길이가 길고, 납작납작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 行 속에 보다 많은 글자를 넣기 위해 上下보다 左右의 길이가 긴 것이 더 實用的인 데 연유된 결과라고 본다.

아무리 筆書者가 글씨를 잘 썼다 하더라도 刻字匠의 技術如何에 따라 그 변용을 가져 오기 때문에 꼭 짊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니 위에 말한 것은 대개 그같은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III. 木活字 印刷方法과 그 用具

A. 印刷方法

木活字 印刷의 方法은 鑄活字 印刷方法⁽¹⁷⁾과 별다른 차이는 없겠으나 이 地方 木活字 印刷 절차는 크게 擇字・組版・印刷・製本의 4 부문으로 나누어 진다.

〔擇字〕 現代式으로 말하면 文選에 해당된다. 擇字는 原稿에 따라 글자를 좁는 일인데 印刷하고자 하는 原稿를 펴고 그 글자 위에 該當活字를 주어 놓는 作業이다. 만약 活字가 없을 경우에는 活字를 즉석에서 雕造해서 사용한다. 이 擇字하는 사람은 印刷 補助者로서 비교적 젊은 사람이다.

〔組版〕 組版의 方法은 2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밀(蠟)을 使用하지 않고 現代 鉛活字 組版式으로 組立하는 경우와, 둘째는 그 밀판 위에 活字를 附着하여 印刷하는 方法이다. 前者の 경우는 木活字가 現代活字처럼 크거나 높이가 꼭 같아야만 이루어지는 組版이니 尚州의 東學本部 木活字가 이같은 組版方法에 따라 雕成된 것이다. 後者の 경우는 밀판에 活字를 附着하여 印刷하는 것인데 이 方法이 보편화된 傳統的 組版이다.

밀(蠟)을 使用할 경우, 먼저 匡郭의 크기를 잡아 흔들리지 않도록 外廓을 固定시켜 놓고 竹片으로써 알맞은 간격으로 界線을 配置한 다음 그 위에 植字하기에 알맞게 끊임 밀을 붓는다. ‘꼴판’(밀 平面을 고르게 하는 나무)으로 植字에 알맞도록 밀의 표면을 고르게 한다. 먼저 版心을 만들고 난 다음 原稿 위에 놓인 활자를 그 위치대로 밀판 위에 밀착시킨다. 이렇게 植字가 完了되면 植字된 版面에다가 平板을 가지고 누른다. 이것은 組版된 活字의 높이

(17) 成僕: 儀齋叢話 卷7 活字條

가 일정하지 못하면 먹이 고루 묻지 못하여 印刷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취해지는 作業이다.

〔印出〕 이렇게 組版이 끝나면 印出匠은 그 活字版 위에 먹을 적당히 칠하고 종이를 그 위에 올려 놓고 人毛로 된 머리뭉치를 기름板(쇠고기 기름 또는 뼈지고기 기름)에 문지른 다음 그것으로 밀판 위에 놓인 종이 위를 눌러 문지른다. 이렇게 하여 한장을 찍은 후에 원고와 비교하여 校正을 보고 誤字가 없으면 예정한 發行 部數만큼 印出한다. 이때 먹을 적당히 칠하는 것과 人毛로 문지르는 技術에 따라 印刷의 好不好가決定된다.

〔製本〕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製本으로 들어 가는데 韓國古來 製本은 그나름의 特性을 갖고 있다. 즉 版心의 下端 匡郭의 눈금을 기준으로 하여 2卷을 1冊(약 50~60張)으로 가철한 다음, 合紙로 된 表紙에 黃色의 물을 들이어 菱花板 위에 놓고 반질한 들로 문질러서 表紙에 능화관의 무늬가 오르도록 하여 만든 黃色表紙를 불인 뒤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에 2개의 구멍을 알맞게 뚫어서(결국 5개의 구멍이 된다) 붙은 합사로 꿰맨다. 이것을 이른바 五針裝法이라고 한다. 중앙에 실을 처음 꿰고 구멍에 따라 좌우로 가면서 얹으면 그 실의 양끝이 최종에는 처음에 시작했던 지점인 중앙의 구멍에서 만나게 된다. 그 실의 양끝을 굳게 맨 다음 그 매듭을 표지 안으로 넣어 버린다. 이렇게 되면 바깥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매듭이 보이지 않게 된다. 이것이 韓國特有의 製本法이다.

B. 印刷用具

印刷用具는 (1) 活字保管箱 및 擇字用具 (2) 組版用具 (3) 印刷用具 (4) 製本用具 등 4部分으로 나누어 진다.

(1) 活字保管箱 및 擇字用具

먼저 活字保管은 문살식 活字 分類箱과 保管箱으로 나누어 진다.

〔문살식 活字分類箱〕 部首別로 分類하여 칸칸이 活字를 넣어 擇字에 손쉽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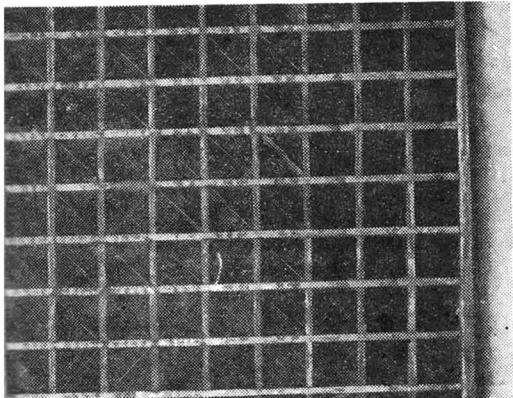
〔圖 18〕

〔保管箱〕 넓고 얕은 상자형 판 위에 활자를 한 겹으로 깔고 그 分界는 수수대나 겨름대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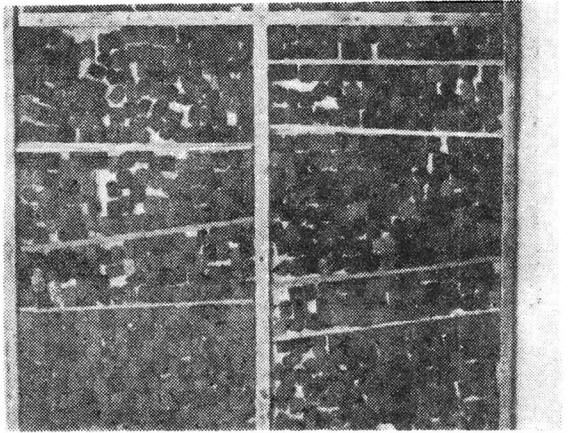
〔대나무저(竹箸)〕 활자를 쥔는 것으로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인데, 이는 끝이 날카롭고 머리는 끈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2) 組版用具

〔밀판〕 이것은 活字版이라고도 한다. 가로 55cm 세로 30cm 두께 3~4cm되는 平板 위에 대나무를 사용하여 匡郭을 固定시키고, 그 속에 竹片으로 界線을 치고 그 사이에 밀(蠟)을 풀여 붓고 밀판 면을 고르게 한 다음 그 위에 植字를 한다. 이 ‘밀판’이 木活字印刷의 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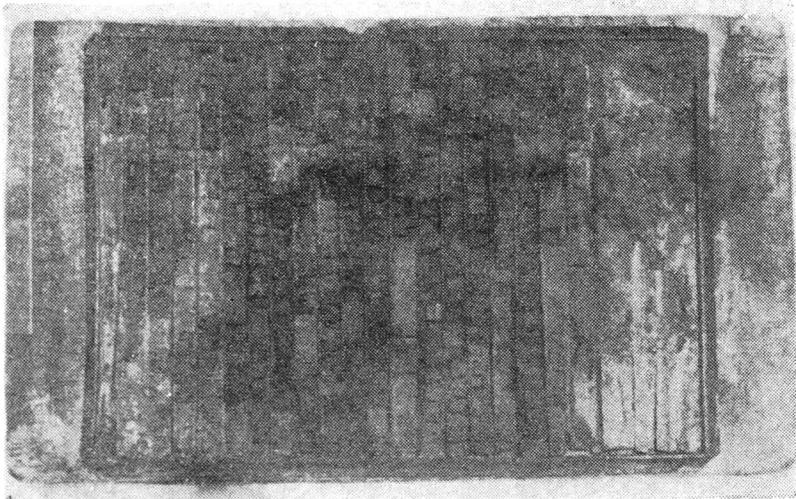


〔圖 18〕文書식활자분류상



〔圖 19〕활자보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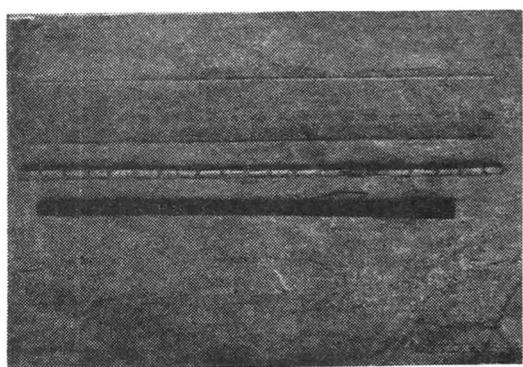
體인 것이다. 活字의 턱이 높으면 이 界線의 竹片이 높아야 하고, 活字의 턱이 얕으면 그 것도 따라서 얕게 된다. 活字의 턱이 높으면 밀이 많이 들고, 턱이 얕으면 밀이 쳍게 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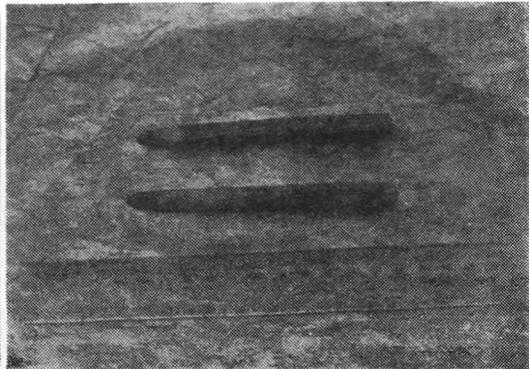
〔圖 20〕安東 臨河 林氏 木活字 밀판 (筆者 藏)

이 밀판은 밑부분에 3~5cm 정도의 다리를 붙이기도 하며 다리가 없을 경우 높이가 알맞은 도마 위에 놓고 일하기도 한다.

〔척수〕 눈금이 있는 자를 말한다. 이는 植字後 活字의 左右上下의 列과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즉 行間과 行間,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는 기준척이다. 이 눈금은 行間과 글자의 크기에 따라서 변한다. [圖 21]



〔圖 21〕 刷



〔圖 22〕 大輻

〔대칼〕 칼이라고도 한다. 植字를 할 때 活字의 앉힘을 고르게 하는 用具이다. [圖 22]

〔글판〕 이것은 行間에 들어 있는 밀을 고르게 할 때 쓰이는 물건이다. 이것의 두께는 行間의 크기보다 커서는 안된다.

〔밀(蠟)〕 組版用 밀은 純粹한 밀을 그대로 使用하는 것이 아니고 밀에다가 피마자 기름 같은 不乾性油를 넣어서 끓여 녹진 녹진하게 만들어서 活字가 附着이 잘 되도록 하여 사용한다. 不乾性油를 넣는 까닭은 밀의 빠른 凝固를 막고, 活字의 附着이 용이하도록 하고, 한편 作業이 끝나면 除去作業도 손쉽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活字印刷에 밀을 사용한 것은 매우 오래된 由來를 갖고 있으니 世宗實錄에 “每當印書 必先以蠟布於版底”⁽¹⁸⁾란 記錄으로 보아 世宗 以前부터 이미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밀그릇〕 이것은 밀과 피마자 기름을 혼합하여 끓인 밀을 담아 두는 그릇인데 아무 容器라도 좋다.

(3) 印刷用具

〔먹물〕 印刷時 重要한 것은 먹물이다. 먹물을 만드는 方法은 첫째, 먹을 부수어서 술을 탄 물에 담그어서 먹물을 만드는 方法과 둘째, 기름검정(油烟)이나 관솔검정(松烟)을 술에 타서 만드는 方法이 있다. 山清華溪 木活字 所有者인 沈柱燮氏에 依하면 먹에 술을 타서 만든 먹물보다 관솔검정(松烟)에 술을 탄 것이 더 좋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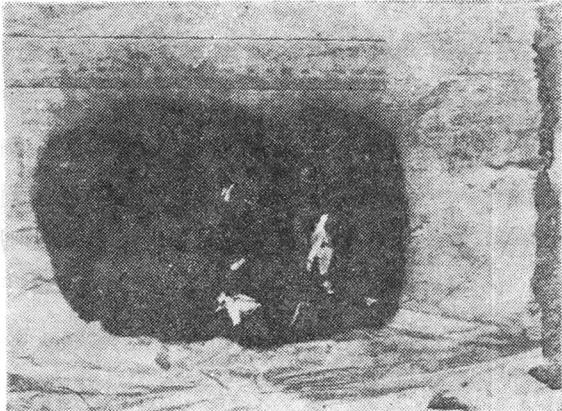
먹물에 술을 타는 까닭은 첫째 종이 위에 찍힌 먹물의擴散을 막고 둘째 물보다 증발이 빨리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니 옛사람의 지혜 참으로 놀랄 만하다. ⁽¹⁹⁾

〔인채〕 人毛라고도 한다. 인채는 사람의 머리털을 뭉친 털뭉치이다. 이는 먹을 版面에 바른 다음 종이를 엎고 그 위를 문지르는데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 머리카락 뭉치를 가지

(18) 世宗實錄 卷65 張3. 影印本 3冊 p.578.

(19) 먹에 얼마만큼의 술을 배합하면 가장 알맞은가에 대한 과학적 실험의 결과는 後日 稿를 달리 하고자 한다.

고 종이면을 문지르면 종이가 부풀지 않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먼저 그 머리카락 뭉치를 쇠기름이나 돼지기름이 녹아져 있는 板 위에 문지른 다음에 밀판의 종이 위를 문지르면 손쉽게 된다. 쇠기름이나 돼지기름에 문질러서 사용하는 이유는 첫째, 종이 면과 인체가 붙어서 종이를 부풀게 하지 않고, 둘째, 인체에 묻은 기름이 글자의 背面에 묻어서 먹물을擴散과 부식을 방지하는데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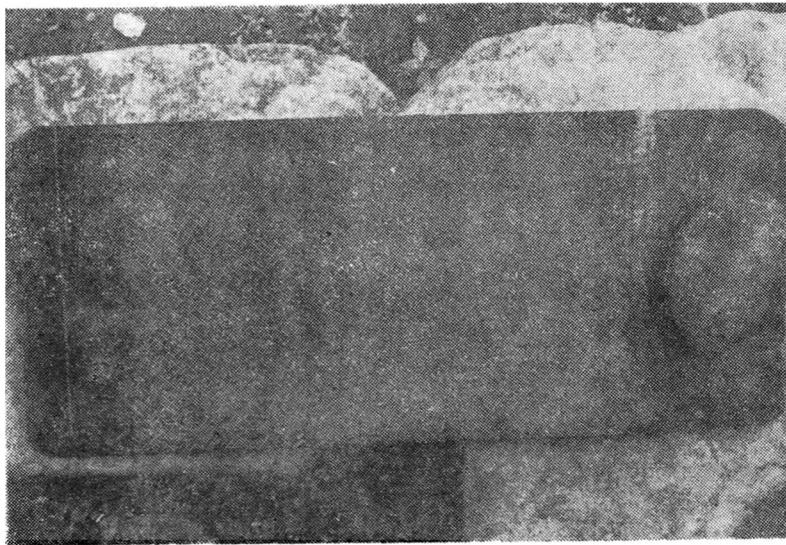
〔圖 23〕 인 체

인체를 만드는 방법은 여자의 머리카락을 물에 넣은 다음 손가락이나 막대를 넣어 휘휘 돌리면 물 속의 人毛가 손가락이나 막대를 中心으로 얹혀하게 된다. 이렇게 얹혀진 뭉치가 곧 인체인 것이다. [圖 23]

〔먹솔〕 먹물을 ‘밀판’(=活板) 위에 칠하는 솔인데, 벼짚의 上端部分 즉 벼가 달렸던 이삭 부분만을 모아 만든 작은 빗자루이다. 이 먹솔로 먹물을 版面에 칠하는 정도에 따라 印刷의 好不好가 좌우되는 것이니 여기에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4) 製本用具

〔송곳〕 韓紙 70張 정도의 두께를 뚫을 수 있도록 끝을 예리하게 만든 보통 송곳과 같은 것이다.



〔圖 24〕 表紙紋樣을 만드는 菱花板과 밀돌

〔片刀〕 재단할 때 쓰는 칼

〔藝花板〕 冊의 表紙를 더욱 견고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實用性에서 由來된 것으로 즉 보기 좋은 무늬를 넣은 板이다. 이 음각된 板 위에 合紙로 된 表紙를 놓고 그 위에 밀을 바른 다음 반질반질한 돌(=밀돌)로 문지르면 板의 무늬가 表紙에 오르게 된다.

우리 나라 表紙의 紋樣은 매우 다양하나 直線과 曲線이 기본이 되어 기하적 구도 속에 曲線의 花무늬들이 잘 조화되어 있다. 曲線을 바탕한 紋樣은 主로 英·正 以前이며 마름모의 직각 紋樣의 대부분은 英正 이후의 것이다.⁽²⁰⁾

〔장척〕 이 장척은 製本을 마치고 책의 사방을 도려낼 때 대고 자르는 긴 나무판이다.

以上 영남 木活字 印刷의 方法과 用具를 대충 설명하였다. 이 가운데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밀판을 만들 때 밀과 不乾性油를 섞어서 풀이는데 그 最良의 配合方法의 과학적 검출이요

둘째, 먹물을 만들 때 먹, 松烟, 油烟 등에 술을 配合하는데 그 配合의 最適度의 科學的提示 등이다.

前者는 活字의 附着이라는 實用性을 앞에서 말은 하였지만 구태여 不乾性油인 피마자 기름을 왜 주로 했느냐 하는 문제도 구체적으로 論議되어야 할 것이다. 後者の 경우 먹물에 술을 탄다는 것은 먹물의擴散을 막고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使用된 것以外의 어떤 뜻은 없겠는가. 이런 問題에 대해선 우리보다같이 규명해 볼 과제라고 생각한다.

IV. 結 言

이상에서 嶺南地方에서 筆者가 發掘 調査한 10種의 本活字를 살펴 보았다. 報告書의 性格을 가진 글이어서 結論이 나올 수 없겠지만 調査·整理事에서 얻은 結果를 간추려 結言에 대신한다.

- (1) 조사된 10種의 木活字를 가지고 본다면 19C를 더 올라 갈 수는 없었고 이 지방의 木活印刷는 1547년에 벌써 慶州 官衙에서 있었음을 알겠으나 언제부터 始作했는지는 알 수 없다.
- (2) 英正 以後에 地方 木活印刷가 盛行하였는데 그 까닭을 王亂을 통하여 붕괴된 사회가 약 200을 경과하는 동안 定着安住되고, 경제적 安定과 더불어 同姓部落이 형성되어집에

(20) 우리나라 書籍表紙의 紋樣에 대해선 年前에 國立中央圖書館 鄭炳浣氏에 의해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을 中心으로 展示會를 가진 바 있다.

따라 自己네의 그 地方의 文化的 社會的 지위 확보와 身分의 安定을 위해 文集과 族譜印行이 必然的으로 要求된 것에서 찾아 봤다.

- (3) 活字雕成 및 使用者의 身分과 營利性을 감안하여 나눌 때 첫째 刻手이거나 刻手와 관련이 있었던 사람들이며 이들은 營利를 目的으로 木活字印刷에 손을 댄 者들이다. 둘째 소위 士類에 드는 신분으로서 自己네들의 祖上 文集이나 族譜를 印行하기 위하여 活字를 雕成 또는 買入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印刷技術者를 雇用하여 使用하는 者들인데 이들은 非營利的印刷를 하였다.
- (4) 木活字의 基本材料는 자작나무, 감나무, 고얌나무, 서나무, 배나무, 대추나무, 대나무 등의 잡목이 좋으나 꽃 이같은 나무라야 한다는 이유는 없다. 나무에 연륜이 없고 刻字에 알맞고 먹물이 잘 끈는 목질이면 족하다. 活字의 雕成 方法은 字本을 가지고 만드는 방법과 이미 있는 版板의 글씨를 도려 내어 活字를 만드는(例, 谷口園集 같은 것) 방법 2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 (5) 嶺南地方 木活字의 字樣은 주로 大字와 小字로 나누어지는데 그들 大小字는 ① 字面의 크기나 밀면의 크기는 같으나 活字의 높이가 높은 형태 ② 字面의 크기보다 活字의 밀면의 크기가 작은 형태 ③ 活字의 字面이나 밀면의 크기는 같으나 活字의 높이가 낮은 형태로 나누어진다. 현재까지 發見된 活字中 높이가 가장 큰 것이 1.7cm인 東學本部 木活字의 大字이고 가장 작은 活字는 0.3cm인 山清 元溪 安東 權氏 木活字인데(일률적으로 다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後期로 내려 올수록 활자의 높이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6) 嶺南地方의 現存木活字의 書體는 대체로 印書體와 筆書體로 나누어지는데 印書體도 영남 특유의 인서체가 아니라 서울 관변활자체 즉 整理字體流의 모방인 것 같고 筆書體는 筆力を 살린 것도 있으나 대개 個性 穎은 만든 글씨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字形은 上下의 길이 보다는 左右의 길이가 큰 납짜납짜한 書體이다. 이는 한 行間에 많은 글자를 넣고자 하는 의도가 作用되어 이루어진 결과인 것 같다. 刻手의 정성없는 刻字 때문에 (무슨 서체라고 이름 불릴 수 없는) 粗惡한 活字 도 있다.
- (7) 木活字 印刷過程은 擇字, 組版, 印出, 製本의 네 단계로 이루어진다. 擇字는 原稿를 보고 活字를 줍는 일이며 組版은 原稿대로 '밀판'에 활자를 植字하는 作業이며 印出은 組版된 版에서 종이로 刷出하는 作業이며 印刷된 종이를 제본하는 일을 製本이라고 말한다. 製本時에는 表紙에 紋樣을 넣어야 하고 五針裝釘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韓國式 製本의 특색이기도 하다.
- (8) 活字組版法에는 2 가지가 있으니 '밀판'에 밀을 사용하여 組版하는 附着式 組版法과 현대 활자의 組版처럼 밀을 사용하지 않고 組立하는 組立式 組版法이다. 組立式 組版法을 사용할 때는 活字의 크기가 일정해야만 組版할 수 있다. 이같은 인쇄 方法을 위하여

雕造된 活字는 尚州 東學本部 木活字이며 그밖에는 거의 全部가 傳統的 在來方法인 附着式 組版法을 使用해 왔다.

- (9) 組版時 밀을 끓여 부어 ‘밀판’을 만드는데, 밀에는 피마자 기름을 섞어서 끓인다. 밀에다가 不乾性油인 피마자기름을 넣는 까닭은 밀이 빨리 굳어지지 않도록 하고 活字와의 附着이 容易하도록 합이었다. 그 配合이 어느 정도일 때 最適한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밝혀져야 할 것이다.
- (10) 印刷時 ‘먹물’을 만들 때, 먹에다가 술을 타서 만들기도 하고 油烟이나 松烟에 술을 타서 만들어 쓰기도 하는데 먹에다가 술을 풀어 쓰기보다는 松烟에 술을 타 쓰는 일이 보통이라 하였다. 먹에 술을 타는 이유는 술이 먹이나 松烟의 溶解를 쉽게 시키고 증발이 물보다 빠르고 또 먹물이 종이에서 퍼지지 않도록 하는 3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配合의 최적도는 日後 과학적 실험을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 (11) 印刷用具는
- ① 活字保管箱 및 擇字用具 ② 組版用具 ③ 印刷用具 ④ 製本用具 등 4部分으로 나누어진다.
- (12) 活字有無未確認印本 11種을 紹介하여 後日 發掘의 資로 삼게 하였다.

以上이 10種의 木活字를 發掘 調査함에 얻어진 結果이다. 어성기고도 짜임새 없는 서술이었지만 이같은 基本作業을 通해서 嶺南地方의 木活字 印刷가 밝혀지고 나아가 韓國 活字印刷史 究明에 도움이 된다면 더없는 생광이라 여긴다.